

선재들의 합창 ①



작업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일상적 삶의 정도(正度)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보려는 것은 예술적 안목을 통한 또다른 세상 보기일 것이다. 그래서 구상과 비구상의 영역이 각각의 특색을 인정받으며 예술의 한 범주를 차지하는 것일 것이다.

나의 화면 표현은 풍경과 정물 또는 일상적인 사물들, 그리고 불교적 소재로부터 오고 있다.

그림이 있는 불교예세이

같은 불배는 색·면·추상적 경향이지만 실은 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화면적 자체는 추상적 경향과 구상적 인상이 혼용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작업 전체를 어두운 색의 감성 터치 특히 주제 부분을 나타낸 것은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감각적인 체험을 더 해주고 관조적임은 일상의 비개성, 이기성을 순화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산수를 찾아 입 주문 대응전 앞에 설 때는 누구처럼 권위와 겸허 동시에 그 안에 피어오르는 청정불심의 여아리를 느낀다. 그 느낌을 그리고 싶은 욕망들이 사실 인식을 단절할 어떤 무아의 상태에서 필묵을 유유히 보고자 하는 것은 어느 작가이든 한 번쯤 몰입해 보려 하는 경지 일 것이다.

강렬한 삼각색 때로는 흔히 존속한다는 색의 도움으로 수묵의 침묵 속으로 침몰되다시피 하는 나의 작업은 때로 자유의지의 표상이기도 하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그리거나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그리는 매우 선(禪)적인 결단기 '부처님의 마음'까지 그림 수 있는 것이기에.

늘 향을 피우는 마음으로 오늘도 허공에서 흩날리는 꽃비를 기다려 본다.

이상진(동양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보는게 예술의 눈

오늘도 우리 천마재활원의 아이들은 마음놓고 지바심 깊은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원력으로 하루하루를 밝고 명랑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요즈음 같이 습기 많고 바깥 출입하기 어려운 날씨에는 청상인들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든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원 안생들은 날씨에 이렇다할지 않고 잘도 견디어 내고 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늘상 앞에 놓여 그들을 마음먹은 대로 보살배 주지 못하는 죄책감이 항상 앞선다.

생각에 보면 내가 천마재활원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대략 3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시절 법사사에서 공역(월간 불교 발행인)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배우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불교에 공식적(?)으로 입문하게 되었으며 그 후 사찰을 내집 드나들듯이 하며 불타 석가모니의 위대한 가르침을 한자 한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까지 특별한 종교가 없었던 내게 불교는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그 당시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지금도 내 생활의 지름이 돼 함께하고 괴로운 고비 때마다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부천시 서구 안남동 산 13-5 3층의 지그마한 발간 베풀었다.

불교에 귀의하게 된 인연을 언급하지만 우리 천마재활원을 배울 수 없다. 천마재활원은 지난 1960년 송도 신경정신과 의원장인 홍성우(58, 남관)씨의 선친이었던 고 함원규 선생에 의해 '사제안'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1971년 일반 아들이 줄어들고 정신지체인이 늘어남에 따라 남편의 연구와 의료사업으로 정신지체인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고 내가 직접 원장임을 맡아 본격적으로 이곳 지체인을 돌보

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풍경 좋은 지금의 위치로 사설을 확장 이전했다.

처음 시아바님이 나에게 천마재활원을 맡아서 해보라고 하셨을 때는 집안의 말머리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터라 떨려 겁부터 났다. 물어봐 보면 어려운 복지사업의 시작을 단순히 사택일 정도로 생각하고 맞닥뜨리게 너무 무모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다른 일에 신경을 거들고 없이 재활원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기를 몇년, 어느 시점이었다고 하기는 막연하지만 나의 생활은 천마재활원을 떠나서는 형성되지가 않을 만큼 나는

속도 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나를 풍요하게 하였고 모든 바람 나뭇잎의 장막 여부를 두고 애써왔던 생활이 차츰 안정되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복잡한 살림은 체계화 되었고 능숙해지는 직원들의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바깥 나들이가 허용될 수 있었다.

그때는 겨울이 오면 마음의 무장이 전량터로 출진하는 군인처럼 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몹시 추운 날 두분의 비구 스님께서 방문 하셔서 겨울 한 철

결재기간들 천마재활원에서 연탄값이 봉사를 하신다고 지원하셨다. 당시에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지만 워낙 연탄에 신뢰가 가고 존경스런 분들이었기에 이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방을 내 드렸다. 그렇게 해서 스님들의 천마재활원 연탄값이 봉사생활이 시작되었다.

검정 조끼잡지와 가스방독 마스크를 쓰신 스님께서는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다. 우리 아이들의 방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쾌적까지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방도배를 하시는가 하면 식탁과 걸상을 고치시고, 이때 아이들은 합장인사



처음 시아바님이 재활원을 맡아보라 하셨을때 경험이 없었던 나는 덜컥 겁부터 났다

이 앞에 결연하게 되었다. 그동안 차츰 천마가 폭이 늘어나 있어 할말이도 단지 살림이 크다는 것 뿐이지 하고 살아왔다. 시간이 모자라던 어느 편가는 시간이 여유로워졌는지 하고 자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다정했던 친척과 지우의 결혼식, 장례식, 동지회, 등반회 등 여러 모임에 연이어서 참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마음은 불편하지만 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 두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기가 대단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모자라는 시간을 스스로 충족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생활을 연민의 정으로 이해하는 속도 이해 못하는

하는 법도 익히게 되었으며 큰아이들을 환경에 알맞게 교육도 하셨다. 정말이지 그 애착이 한 마가죽이 크게 아프지도 않고 큰 걱정없이 보내기도 드문 일이었다.

박근림 <부산 천마재활원 원장>

◆ KHAGGAVASANASUTTA (코뿔소경) ◆ In him who has intercourse with others affections arise, and then the pain which follows affection; considering the misery that originates in affection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 He who has compassion on his friends and confidential companions loses his own advantage, having a letters mind; seeing this danger in friendship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 Just as a large bamboo tree with its branches entangled in each other, such is the care one has with children and wife; but like the shoot of a bamboo not clinging to anything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영어로 배우는 경건 **숫타니파타** ⑦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게 되면 본래의 뜻을 잃게 된다. (진한)에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은 딱지 가지가 푸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죽순은 다른 나무가지에 달라붙지 않듯이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Rhinoceros 코뿔소 무스 *Bamboo 대나무, 죽순, 죽

한영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피려했던 낮안침이나 소중할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유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람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도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도록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 침대 전문 회사** 3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만일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 좋은 품질, 편안함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폭에 2cm 이상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케리피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 초저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투 투 매트리스 시스템** 각각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침대를 바로 편일 수 있으며, 수명이 2배 연장되게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나라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아장2리 19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재수(再修)보다 삼수가 더 힘겹듯이...

질병·고통·재난·실제·손재·이별·죽음 등 불행한 일들, 건강·환희·성공·부·명예 등 행복한 일들, 운명·능력·환경이라 이름하는 것들. 그것들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다만 행운이요, 다만 불운인가.

물질 세계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엄존하는데 우리들 삶의 세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에도 그와 같은 원인-결과와 법칙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창조주의 뜻인가.

만약 원인-결과와 법칙에 따른 것이 라면, 불행의 원인, 행복의 원인 계공자는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부모인가, 조상인가.

내가 원인의 제공자라고 한다면, 재 자신을 찾아오는 순환 행·불행에 대해 낯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재 화하게 살리고 재를 쓰는데도 불행은 비껴가지 않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일까. 재 악행을 저지르고도 명멸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일까. 원인-결과와 법칙이 불행의 원인이거나 아니면 영성하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어느 종교에서처럼 그것은 창조주의 뜻이나 인간으로서의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에 속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행·불행의 주체는 그대 자신이다. 신도 아니요, 조물주도 아니요. 불보살도 아니요. 거룩한 이도 아니다. 오직 그대의 마음, 그것이 주체이다. 마음 밖기에 달린 것이다. 이것은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원두현명한 법칙이다. 무심코 일으킨 생각 하나하나라도 결과가 없는 법은 결코 없다!' 이른바 업의 작용, 과보라는 것이다.

자기가 욕망을 먹었으니 복하기도 할 것이고 자기가 말을 내뱉었으니 말

값을 치러야 하듯이 생각 하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공허한 것은 없고 일어난 대로 재적재적 정어져 있다. 더구나 그 업의 작용이란 시간·공간을 초월한 것이어서 자신이 그 원인을 알고 모르기에 관계 없이 되풀아 나올 조건만 갖으면 언제든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행위의 기류 문서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다. 윤회의 바퀴를 돌리면서.....

그러나 업의 작용은 행벌이 아니다. 용정이나 보복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작용이 있는 곳에 반작용이 따르는 이치의 값을 판다. 주권으로 비위를 치니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다.

업의 작용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통증을 느끼고 나서 더 이상 바퀴를 치지 않으려 하는 것, 그것이다. 예컨대 내게 찾아온 고통·질병·재난을 통해 그것이 탐욕·질투·성냄 따위의 나의 주먹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더 이상 탐욕·질투·성냄 따위의 마음을 그치려 하는 것, 그것이 업의 작용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훈을 선용(善用)하지 못한다면 작용-반작용의 법은 더욱 커져서 앞서의 고통·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 엄습하게 될 것이다. 재수(再修)보다 삼수가, 삼수보다 사수가 더 고통스럽듯이...

불법엔 이 업의 작용을 녹여내리는 가르침이 있다.

협찬: 윤 여 형